



빨갛게 물든 단풍과 국수 자락을 걸어놓은 듯한 폭포가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영동의 물한계곡.



옥정호의 기암괴석과 호반을 가로지르는 운암대교가 빼어난 가을 풍경을 연출한다.



## 청명한 가을 그윽한 법향 '가슴 설렌다'

관광공사 추천 가볼만한 우리땅

쪽빛 바다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경남 사천 일대 다도해의 풍경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오래 머무르게 한다.



가평 현등사에 걸린 풍경이 초가을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전한다.

청명한 가을빛이 완연한 9월이다. 가을은 호수와 계곡, 산 등 어디를 가도 다 좋다는 느낌이 든다. 떠남 그 자체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국관광공사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우리 땅 4곳을 선정했다. 인근에는 가볼만한 사찰도 있어 가을의 정취와 함께 그윽한 법향도 맡을 수 있다. 자, 가을 속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가 보자.

김주일 기자

### ▲ 전북 임실 옥정호

#### 6km의 맑은 계곡 사이로 가을 단풍 일품

전라북도 동남방에 위치한 임실은 여태껏 관광지로서 무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때문지 않은 산과 물이 있는 청정지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국사봉을 오른쪽에 두고 옥정호를 감아 돌아오는 길은 연인들을 위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삼진강 상류 뱃줄기 따라 돌거북이 수 없이 강물에 노니는 구담계곡의 맑은 물은 지친 몸을 식히기에 충분하다.

또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인 구담마을은 그 아늑함으로 김손의 발길을 잡는다. 삼진강 시인 김용택의 고향 장산마을 앞에서부터 천담계곡을 따라가는 약 10km 정도의 '걸고 싶은 길'이라 명명된 자갈길은 우리들을 먼 추억으로 안내한다. 아침안개 드리운 옥정호와 안개 속에 뜬 운암대교의 어울림은 어느 미술관에 전시된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임실만의 아름다움으로 꼽힌다.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063)640-2224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 진입-전주 시내 동부우회도로를 관동-17번 국도를 타고 남원 방향으로 약 30km(승용차로 40분 정도)지점

### ▲ 경기 가평 조무락 계곡

#### 시 읍으며 연인과 함께 '걸고 싶은 길'

숲이 울창해 산새들이 조무락거린다(재잘거린다)의 사투리고 해서 '조무락'이라 붙여졌다. 호랑이가 웅크린 모습을 한 북호동쪽포, 파리를 쫓듯 쪽포수가 돌아 흐르는 골뱅이소 등이 이채롭다. 조무락계곡 인근에 가평 8경 중 하나인 웅소폭포와 무주채 폭포도 놓쳐선 안될 볼거리다. 그 외에도 경기도의 5대 약산으로 가평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불리는 '경기의 금강' 운악산은 등산로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가평군청 문화관광과 (031)580-2065

**인근사찰** **현등사** = 천년고찰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고 고려 희종 때 보조국사 지눌이 재건한 사찰. 경내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3층석탑과 봉선사종,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지진탑(보조국사사리탑), 부도 등이 있다. 특히 매표소 입구에서 '현등사 문화유산해설사'를 만날 수 있어 해박한 설명과 함께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도 있다.

**찾아가는 길** 구리시-46번 국도(춘천 방향) - 평령 - 가평 - 75번 국도(목동 방향) - 목동(북면)에서 좌회전 - 가들기 - 도대리 - 적목리 - 용수목

### ▲ 경남 사천 비토해면

#### 어촌의 정겨움 느끼며 바다 일몰 감상

쪽빛 바다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섬들. 남해안 일대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사천 일대에서 감상하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삼천포 일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삼천포대교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꼬끼리 바위로 유명한 남일대 해수욕장, 서로는 아직 찾는 발길이 드문 실안 해안 일주도로에서 일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서포면 비토도는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과 아기가자기한 주별섬 그리고 한적한 어촌마을이 너무나 정겹다.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055)830-4000

**인근사찰** **다솔사** =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4년(503) 연기조사가 창건해 영악사(靈岳寺)라 불리다가 선덕여왕 5년(636)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됐다. 특히 최법술 스님은 다솔사에서 60년 동안 절 뒤쪽 비탈에 차밭을 일구며 반야로차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다인들 사이에는 다솔사가 '다사(茶寺)'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반야로차 때문이다.

**찾아가는 길** 서울-대전영동고속도로-사천IC-곤양IC(남해고속도로) - 톨게이트 통과후 좌회전시 비토섬, 우회전시 다솔사

### ▲ 충북 영동 민주지산

#### 빙풍 두른듯 절경, 뻑뻑한 원시림에 흠뻑

1,100m~1,200m의 고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충북 영동의 민주지산. 경북과 전북이 만나는 충북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산은, 한 번 와 본 사람이면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의 명산(名山)이다.

물이 차다(寒)고 이름 붙여진 물한계곡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뻑뻑한 원시림과 함께 의용골 폭포 등 수많은 소(澗)가 어우러져 산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등 8개동을 갖춘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가볼만하다. 영동군청 (043)740-3211

**인근사찰** **황룡사** = 1972년 창건된 황룡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 2동과 산신각이 있고, 경내에는 대웅전 앞에 석등 2개, 7층석탑 2개, 연화대 석조일불상 등이 있다.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황간 IC에서 나와 영화 '집으로'의 촬영장소인 상촌면을 지나 물한 계곡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소요된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곤지암 우리절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회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 ◆우리절개산대제

오는 10월 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법회를 봉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봉 합장